

# Grace in Action

Stories of God at work in and through the GIS community



## 그레이스는 학생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3년전, 저희들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적당한 학교를 찾거나 아니면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레이스 국제학교를 찾았고 저희들은 이전 사역지에서 치앙마이로 옮겨왔습니다.

첫째 딸 나오미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나오미는 친구 사귀기를 수줍어하고 남의 이목을 의식하고 자신과 잘 맞는것을 찾기 위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오미는 수학 교사 게릭(Mr. Gerig)선생님을 포함해 교사들을 잘 따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초반에 나오미는 학생회 임원후보에 올라 좀 놀랐고 후보 수락을 했습니다. 잘 준비되고 경험도 있는 몇몇 다른 학생이름과 함께 나오미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생회 임원후보로 지명되는 초반의 흥분이 가라 앉은 후, 나오미는 스스로 의심하고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릭(Mr. Gerig)선생님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후보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릭(Mr. Gerig)선생님은 알리지 않고 나오미 이름을 후보 명단에 계속 두었습니다.

그 다음주에 게릭(Mr. Gerig)선생님은 남편과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게릭(Mr. Gerig) 선생님은 나오미가 학생회 활동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나오미에 대해 믿는바를 반복해 언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오미에게 얘기 했을 때 그것은 나오미의 생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누군가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리더로 탁월하다고 믿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오랜 시간 연설문을 다듬었고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학생회 서기로 선출된 이래, 지금은 전체 학생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선생님 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결코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레이스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며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입장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Karen Hausman*

“그레이스 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